

“5·18 폄훼 안타까워... 전국적으로 연대해야”

5월 단체장·광주 원로 만난 文, 무슨 대화 나눴나

“몰지각한 행위에 분노... 할 수 있는 조치 다 하겠다” 원로들, 진상조사위 착수와 5·18 왜곡 처벌법 촉구

문재인 대통령과 5·18 단체장, 광주 원로들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문제가 하루 빨리 해소되도록 전국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단체장들과 광주 원로들은 왜곡을 방지할 5·18 처벌법 제정과 5·18진상조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단체장과 광주 원로 14명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 일정은 지난 18일 당사자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추운데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고 참가자들도 “대통령이 고생이 많으시다. 힘내라”고 화답하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 망언과 폄훼에 대한 대책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망언을 계속하고 왜곡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도 진상규명이 제

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 만큼 진상규명특조위 조사위원 추천이 다시 한번 이뤄지도록 해 진상규명위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도 진상조사위원 재추천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며 관심을 보였다”며 “또한 5·18이 광주만의 5·18이 아닌 4·19나 6월 항쟁처럼 전국적으로 기념되는 5·18 전국화가 이뤄지길 바라며 이를 위해 단체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도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간 주장한 내용을 다 전달했다. 못다한 내용은 서면으로 전달했다”며 “지민원 구속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왜곡처벌법에 대해서도 촉구했으며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옆자리에 앉았던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도 “우리가 세금을 축내고 하는 이런 이들이 세금을 축내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왜곡을 막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대통령에게 당부했으며 공법단체를 추



여당 “5·18 망언 국회의원 즉각 제명”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단체협의회와 광역의회의협의회, 기초의회의협의회, 시도의회의협의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5·18 망언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 19명도 참석했다.

진하겠다고 전했다”면서 “이에 대통령은 ‘신군부가 당시 통신과 교통을 두절해 광주만의 5·18이 됐고 지금까지 무슨 혜택을 본 것이 있나’고 말씀 하셨다. 강원도부터 부산까지 유공자가 있는 만큼 5·18의 혁혁한 전과를 전국적으로 연대해 알리도록 하라고 화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전 관장은 “대통령의 세심한 마음씀씀이에 감격했다”며 “남북문제로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 5·18 문제를 짚어 주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5·18 문제를 역사적으

로 몰지각한 행위라며 분노를 드러냈고 흔한 수사를 넘어 진심을 나타냈다고 참석자들은 평가했다. 또 오찬 말미에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정길 6·15광주본부 상임고문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광주세계수령

대회에 북한의 참여로 평창올림픽과 같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회담이 잘 성사되면 특별히 무리 없이 잘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대통령 발언으로 국민이 힘을 얻었다”

원로들 ‘광주 민심’ 전달
기념시계·목소리 선물

끊이지 않는 ‘5·18’ 왜곡 시도

조원진·김진태 등 유공자 명단 요구 잇따라

대통령 초청 5·18 간담회장 어땠나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관련 발언으로) 국민이 힘을 얻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문 대통령과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의 왜곡·폄훼는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문 대통령 발언으로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힘을 얻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전 관장 뿐만 아니라 이날 참석한 광주 지역 원로들은 광주 시민들이 문 대통령의 발언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달라는 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광주 민심’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자유한국당 세 의원의 ‘5·18 망언’ 파문 전에 계획된 것으로 확인됐다.

“7대 중대 지도자 초청 간담회”처럼 대통령이 각계 각층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계획됐는데, ‘5·18 망언’ 파문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5·18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간담회가 됐다.

초청 대상은 청와대가 아닌 광주지역 원로 그룹에서 참석자들을 결정한 가운데 ‘5·18 망언’ 파문 이후 5월 단체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안 전 관장과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5월단체와 최철 광주3·1혁명 100주년사업추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등 14명의 광주 원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광주 원로들에게 선물한 기념 목청어머니집

지역 출신인 강기정 정무수석과 민행배 사회정책비서관이 청와대 본관 입구에서 광주 원로를 영접해 간담회 장소인 인왕실로 안내했다.

문 대통령은 인왕실로 입장하면서 14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광주 원로를 따뜻하게 맞았다. 현지스님 앞에서는 합창으로 인사했으며, 안 전 관장과 인사할 때에는 왼손으로 안 전 관장의 등에 손을 올려 친근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인왕실 가운데 마련된 원형 테이블에는

문 대통령을 기준으로 좌우에 각각 안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과 이명환 6·15 광주본부 상임고문의 자리가 배치됐다.

문 대통령과 마주보는 자리에는 김후식 5·18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김정길 6·15광주본부 상임고문, 이홍길 전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 등이 앉았다.

광주지역 원로들은 ‘5·18 망언’에 대한 유감을 가감 없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원로들은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다.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괴물집단도, 세금을 축내지도 않다”, “자유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재추천 등은 적절한 조치였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오찬은 정오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갈비찜 등을 메뉴로 식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다. 오찬 후 문 대통령은 광주지역 원로들에게 기념시계와 거울을 따뜻하게 보내라는 의미로 목청어머니집을 선물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극우세력의 역사 왜곡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관련 자료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5·18 유공자 현황, 5·18유공자 등록 후 취소 현황 및 사유, 유공자 지역별 등록 현황, 보상비 지급 현황, 5·18유공자별 피해 정도, 피해 당사자와 유족, 유공자 선정 연도 등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대한애국당 최고위에서 “국가보훈처가 5·18민주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법이 통과돼 매년 5·18민주유공자의 현황과 그들에 대한 지원 현황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 회원 200여 명도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집회를 갖고 가짜 유공자 의혹을 제기하며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5·18 망언’ 공청회를 주도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해 10월 5·18유공자 현황과 보상금 지급액수, 지급 현황 등을 광주시에 요구한 바 있다.

유공자 명단 공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극우세력들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관련 자료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역사 왜곡과 5·18정신 훼손내기를 통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이같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해당 사항 없다’고 답신했다. 현재 5·18유공자 신상정보는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2019 상반기 KAPID FIRST HALF MATCH-MAKING SESSION 2019 해외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 **일시** 2019년 2월 28일(목), 10:00~17:00
- **장소** 광주 라마다호텔 5층
- **주최**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 **대상** 초청 해외바이어 및 국내 광융합 산업 관련 제조업체
- **주요내용** 국내기업 및 해외바이어간 수출상담·계약 체결 지원
- **지원범위** 국외왕복 항공료(Economic Class 기준) 70%, 숙박 2박
- **문의** 광융합산업본부 마케팅지원부(062-605-9633/ehyang@kapid.org)

• **프로그램**

시간	내용
10:00~10:20	한국광산업진흥회 소개
10:20~12:00	Business Meeting
12:00~13:30	Networking Lunch
13:30~17:00	Business Meeting

• **기타 해외마케팅 관련 행사**

행사명	OFC 2019	Tokyo Lighting Fair 2019	러시아·CIS 현지 수출상담회	Laser World of Photonics 2019	태국·베트남 광융합 수출상담회	LEDTEC ASIA 2019
기간 및 장소	'19. 3. 5~7 미국(샌디에고)	'19. 3. 5~8 일본(도쿄)	'19. 3. 8~17 러시아, 카자흐스탄	'19. 3. 20~22 중국(상해)	'19. 5. 18~25 태국, 베트남	'19. 5. 23~25 베트남(호찌민)
행사명	Interlight Moscow 2019	ECOC 2019	인도네시아 현지 수출상담회	Power Gen 2019	2019 광융합 산업로드쇼	라이다산업 시장개척단
기간 및 장소	'19. 9. 10~13 러시아(모스크바)	'19. 9. 22~26 아일랜드(더블린)	'19. 10. 21~25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9. 11. 19~21 미국(올랜도)	'19. 11. 27~28 한국(광주)	'19. 11. 30~12. 8 독일, 프랑스

※ 상기의 기타 해외마케팅 관련 행사에 관심 있는 기업의 경우 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 하시면 좀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광융합산업본부 마케팅지원부(062-605-9632/ebryan@kapid.org))

International Photonics Convergence Trade Fair 2019 국제 광융합비즈니스 페어

- **일시** 2019. 8. 26(월) ~ 8. 28(수)
- **장소** COEX D홀(3층)
- **주관**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 **후원** 아셈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ASEIC), 한국광기술원, 한국광학기계산업협회, 한국광학회
- **규모** 200개사 250부스
- **비즈니스 페어 및 수출상담 분야**
 - 차세대 광·ICT 융합제품, 광통신시스템, 스마트 조명기기, 광계측, 홀시큐리티 광학기기, 웨어러블기기, 광학·플라스틱 렌즈, 센서기기 등
- **부대행사**
 - 25개국 200명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2019 국제광융합산업 발전포럼
 - OLED조명 국제워크숍
 - 광융합산업 육성지원기관 연계 세미나
 - 광융합산업 신기술 전시 및 우수제품 개발업체 시상

